

함께하는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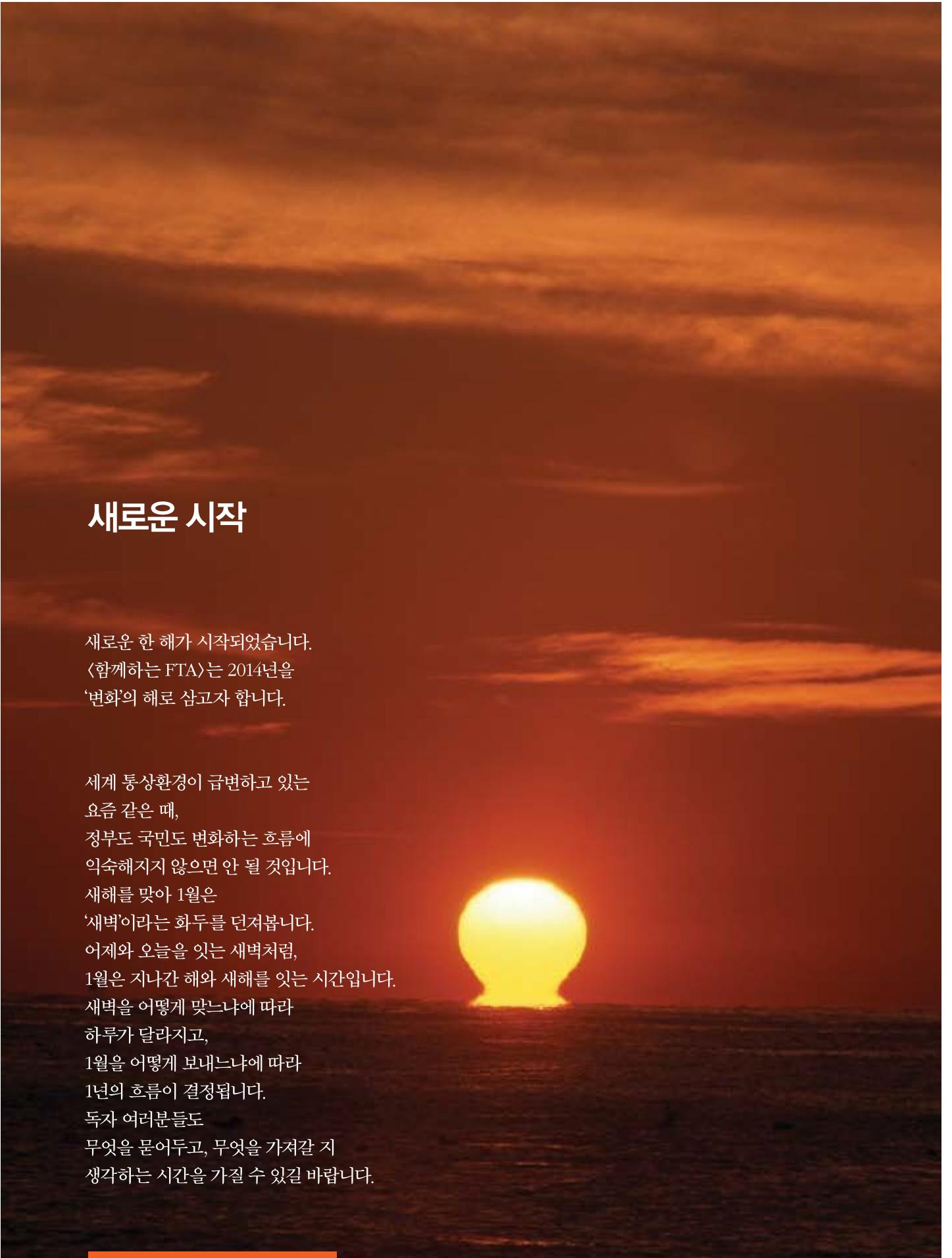
January 2014 vol. 20



한국 FTA 10주년

파워 인터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컬처 프리즘: 새벽을 여는 사람들



"FTA 활용의 최전선, 우리가 책임집니다"

FAT무역이 일반화되면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FTA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원재료·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관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산으로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FTA-Korea(FTA-코리아)'는 정부 지원 아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개발해 2011년 6월부터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FTA 활용 프로그램이다. 개발사인 KTNET의 FTA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FTA-Korea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보급하는 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FTA-Korea의 특징은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법만 안다고 해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FTA에 대한 이해도와 프로그램의 숙련도를 모두 갖춰야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엄기석 팀장의 말이다.

지난 몇 년 사이 아세안, 유럽, 미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FTA가 맺어지면서 기업 실무자들에게 활용을 권유하고 다녔지만, 지금은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내용도 FTA 기본 지식보다는 FTA-Korea 설명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라고 장성훈 관세사는 전했다.



KTNET의 FTA팀은 FTA 활용 프로그램인 'FTA-Korea'의 전문가들로, 실습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한다.
왼쪽부터 양윤석 부장, 이승희 차장, 엄기석 팀장, 이아름 과장, 이수환 차장, 장성훈 관세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FTA팀

FTA팀은 업체의 요청이 오면 직접 업체를 방문해 FTA 기본교육부터 FTA-Korea 활용법을 알려주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해(2013년)에는 설명회 26회(440개 업체 601명 참석), 실습교육 16회(309개 업체 352명 참석), 95개 업체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월 2회(회당 4시간) FTA-Korea 교육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

FTA-Korea 교육·컨설팅 문의
02-6000-2025/2032/2033/2036

contents

January 2014 vol. 20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1월 15일(통권 20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COVER STORY

2014년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FTA 시대를 연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호 표지는 10년 동안 큰 나무로 성장한 한국의 FTA를 담았습니다. FTA를 통해 기업은 수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들의 삶도 윤락해질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표지일러스트 안우정



01	12	22	34
FTA People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FTA팀	COVER STORY 한국의 FTA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FTA Lounge 우리 회사 수출품 1호: 삼양라면 양충모 객원기자	FTA Study 알쏭달쏭 FTA 실무지식, 짚고 넘어 가실게요!
04	14	24	35
FTA Greeting 무역 일선에 보내는 신년인사	COVER STORY 지나간 10년, 무엇을 남겼나?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교수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	FTA Lounge 한국의 맛: 한민족의 얼을 담은 과일, 배	FTA Study 스파게티볼 효과
06	16	26	36
Power Interview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터뷰	COVER STORY 다가올 10년, 무엇을 해야 하나? 김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 연구위원 김명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종국 한경비즈니스 기자	FTA Lounge 역사로 보는 FTA FTA의 탄생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Culture Prism 새벽을 알려주는 사람들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08	18	28	38
Issue Focus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Leader's View 2014년 통상환경 전망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FTA Study 알아두면 쓸쓸한 APTA의 이해와 활용 박중광 Ciel HS 대표/관세사	Culture Prism 독자와의 만남: 조각가 안규철
09	19	30	40
Issue Focus 2014년 수출기상도	FTA Cartoon FTA 강국! 대한민국 포에버~	FTA Study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도어스커프 & 휴대폰 케이스 이민선 관세사	Culture Prism 미리 가 본 소치동계올림픽 김원수 KBS 스포츠취재본부 기자
10	20	32	42
Issue Focus 한-EU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FTA Lounge 풀리지 않는 나사 만들기, 나사록코팅	FTA Study 사후검증 따라잡기 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FTA News 한·중 FTA 제9차 협상 개최 등
			44
			INDEX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2014 FTA

우리 기업인들을 응원합니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FTA무역종합지원센터장

무역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FTA 독자 여러분! 우리는 세계경제 불안의 격랑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최대 흑자,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개척하려는 우리 무역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무역환경도 엔저, 유럽의 재정 위기 지속,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자신감을 발판으로 세계무역 5강,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더 큰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합니다. FTA로 넓혀진 경제영토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FTA 콜센터 1380과 FTA무역종합지원센터도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2014년은 우리의 FTA 정책이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칠레를 시작으로 터키까지 총 46개국과 9건의 FTA를 발효했고, 이는 우리 기업들이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국제통상환경은 급변하고 당분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2년을 끌어온 WTO DDA 협상이 발리파끼지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으나, 전 세계적으로 거대 경제권간의 FTA와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도 그간 체결한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갑오년 말띠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저희 관세사들은 기업들의 무역 업무가 이뤄지는 현장 최前线에서 FTA 업무를 접하는 전문가로서, 기업들의 FTA 활용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신 기업 종사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FTA> 독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희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저희 관세사들은 기업들의 무역 업무가 이뤄지는 현장 최前线에서 FTA 업무를 접하는 전문가로서, 기업들의 FTA 활용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신 기업 종사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FTA> 독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Fighting!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FTA를 열심히 추진해 GDP 기준으로 세계 3위의 거대한 FTA 연방을 구축했으며, 2014년에도 한·중 FTA 협상 본격화,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와의 FTA 마무리,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복합 FTA 추진, TPP 가입 등 많은 FTA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이제는 어렵지만, FTA를 적극 활용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저희 FTA 전문가들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FTA 문제점을 해결하고, FTA를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석기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센터장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기상과 말의 역동성이 올 한해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한·터키 FTA가 발효됐고, 중국과의 FTA도 협상을 거듭하며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무역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우리 기업도 청마처럼 힘차게 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업들이 FTA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여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 지난 1년
을 보내셨는데, 회고해 보시면 어떤가요?

지난해는 세계 경기 회복 둔화, 엔저 현상 가속화, 북한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 흑자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취업자 수 등 주요 실물지표도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업인, 근로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대내 여건도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특히 지난 여름철 전력 위기는 온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목표로 통상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통상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된 지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듭니다만, 일부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지난해 6월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신(新)통상 로드맵'을 수립해 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통상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산업계·전문가·국회와 적극 소통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FTA, 대한민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는 지렛대”

지난해 3월, 정부는 통상과 산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FTA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이관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따른 각국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장관을 만나 2014년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FTA를 진전시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완료했고, 한·호주 FTA, WTO 발리 패키지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신흥국과는 산업·자원·에너지 협력과 연계한 상생형 FTA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FTA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FTA 시작은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등 FTA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영토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이고, 우리와 FTA를 맺은 나라들이 전 세계 경제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 3년간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규모를 달성한 것도 적극적인 FTA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FTA의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화장품·와인·자동차 등 FTA 체결 전에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소비했던 수입 제품들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빚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간 한·칠레, 한·미 FTA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축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10년간 우려했던 정도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호주 등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농축수산업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의 산업별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소득 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제도 등을 통해 피해 보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취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FTA, TPP 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FTA의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TPP 등 다자간 FTA가 급부상하는 등 국제통상환경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 아래 총 9개의 FTA 협상을 동시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입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민감 품목의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TPP 관심 표명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서 다자간 FTA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TPP 공식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국가와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국내 산업별 영향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FTA〉 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신년 인사를 겸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오년은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오행풀이로는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미래의 의미를 지닌다고 도 합니다. 작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금년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외무역 확대, 투자·고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그간의 실물경기 회복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창조경제 확산 등 미래 대비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통상 협상과 활용을 동시에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으로서 윤상직 장관은 해외 통상 관련 회의와 국내 산업계를 오가며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중소기업 FTA 활용률, 2012년 대비 높은 증가율 보여

-한·미 FTA 9.8%p 상승, 한·EU FTA 2.8%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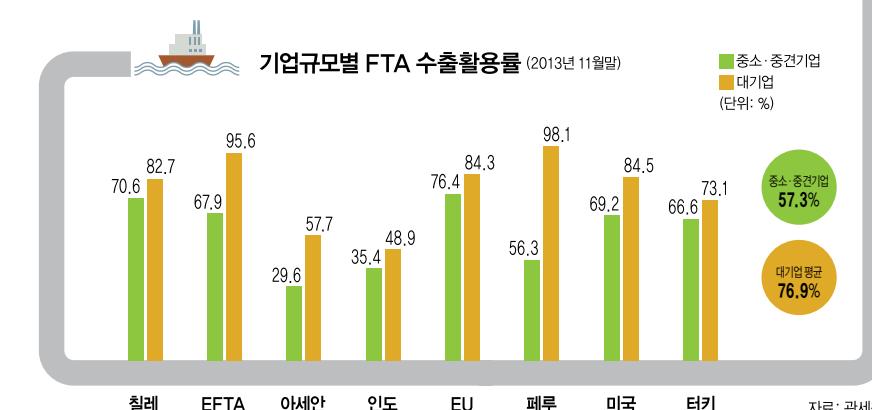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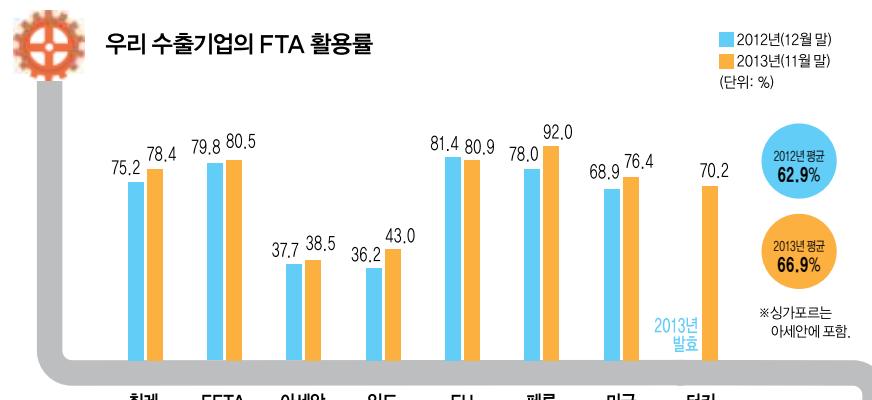
2013년 우리나라가 체결한 9개 FTA 협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평균 FTA 활용률은 66.9%로 전년보다 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11월말 기준). FTA 수출활용률은 FTA 관세양 허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EU(80.9%)와 미국(76.4%)은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8.5%), 인도(43%) 등과의 FTA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인도의 FTA 활용률이 낮은 것은 낮은 관세양허, 복잡한 원산지증명 방식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5월 발효된 한·터키 FTA의 경우 7개월 만에 70.2%의 높은 수출활용률을 기록해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인식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발효 2년차인 한·미 FTA의 수출활용률은 7.5%p, 2012년에 가장 낮았던 한·인도 CEPA는 6.8%p 각각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FTA 활용률이 증가했다. 다만 2012년에 가장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한·EU FTA의 경우 2013년에는 0.5%p 소폭 하락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이 2012년 대비 한·미 FTA 및 한·EU FTA 모두 대기업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미 FTA의 경우 대기업 FTA 활용률은 9.7%p, 중소·중견기업은 9.8%p 증가했다. 한·EU FTA에서도 대기업의 FTA 활용률은 0.8%p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9%p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FTA별로 상이하나, 기계류, 플



라스틱·고무제품 업종의 FTA 수출활용률이 대체로 높은 반면, 농림수산물의 FTA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서는 고무제품(97.7%), 섬유·화학기계(93.5%), 인조섬유(96.2%) 등의 FTA 활용이 높고, 공기조절기(47.4%), 조명기기(33.4%), 기호식품(33.8%) 등의 FTA 활용은 저조했다. 한·EU FTA의 경우 자동차(98.9%), 자동차 부품

(93.8%), 건설광산기계(99.7%) 등의 FTA 활용은 높았으나, 석유제품(53.3%), 광학기기(62.6%) 등의 FTA 활용은 저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정책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4년 수출기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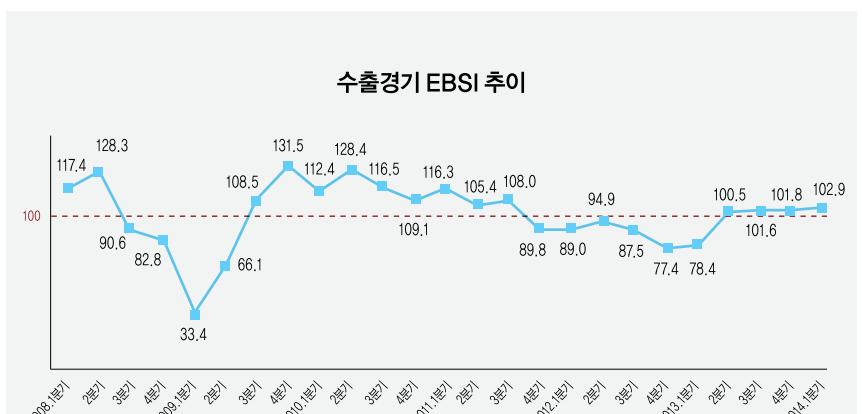
기업들, 수출여건 점진적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EU FTA 2.8%p 상승

2014년 1분기 수출경기는 선박·가전제품·자동차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958개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02.9를 기록하여 전분기(101.8) 대비 수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무역업계는 1분기 중 수출상담 및 수출계약이 늘어나고 설비가동률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수출채산성 및 수출단가, 수출상품 제조원가 여건은 전분기에 이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채산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하락(51.1%)이 크게 작용했다.

품목별로는 선박(EBSI 125.0), 가전(116.7)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은 내년 세계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전업계는 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 및 신제품 출시 수요 증가로 견조한 수출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101.5)는 글로벌 시장의 수



*EBSI는 100을 기준으로 최대값 200, 최소값 0을 갖는 지수로서 전분기에 비해 경기를 밝게 보는 의견이 많을수록 200에 가까워지고 경기를 어둡게 보는 의견이 많을수록 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경기를 좋게 보는 의견과 나쁘게 보는 견해가 균형을 이룰 경우 지수는 100이 된다.

요증가와 FTA체결 확대 및 해외 마케팅 강화로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수산물(82.4) 부문은 2013년 4분기 보다 수출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20.9%)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수출대상국 경기부진(16.6%) 및 원자재가격 상승(16.6%)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자작됐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심혜정 연구원은 “2014년 1분기 우리 수출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며 비교적 양호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의 대외적 리스크와 엔저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는 만큼 이를 상시 모니터링 하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EU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EU와 협력 강화…유럽 진출 쉬워진다

지난 12월 20일 무역센터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한-EU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최근 EU의 경기 회복으로 대EU 교역 및 투자 지표들이 개선되고, 한-EU FTA의 활용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럽 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은 물론, 진출 희망 기업의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해 유럽 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높아진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의 발표 내용 중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경제 전반 한-EU 연구혁신센터 설립

한-EU 연구혁신센터(Korea-EU Innovation Center)는 EU와의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및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EU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난 11월 8일 벨기에 브뤼셀에 개소됐다. 센터는 EU와의 정보·정책·연구·산업 분야 협력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EU에 진출하거나 EU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센터를 통해 기술·산업·사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벤처(중소)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또한 센터의 주요 사업인 바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업들의 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협력 분야 프로파코, EBRD 등과 MOU 체결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프랑스, 영국의 기관 및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우선 신흥시장 공동지원을 위해 프로파코(Proparco, 프랑스 개발금융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또한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과 전략사업에 대한 공동 지원 확대를, 세계 5위의 석유회사인 토탈(Total)과는 프로젝트 참여 기반 강화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영국에서는 신흥시장에서의 협조적 용자 활성화를 위해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와 MOU 서명식을 가졌으며 UKEF(영국수출금융청)과도 양국 기업의 제3국 사업 공동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해양시추설비 전문선사인 씨드릴(Seadrill), 영국 3위의 민간은행인 바클레이즈와도 MOU를 체결해 금융지원 및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무역보험 분야 프랑스, 영국의 무역보험기관과 MOU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프랑스, 영국의 무역보험기관들과 MOU를 체결했다. 우선 프랑스의 무역보험기관인 코파스(COFACE)와 MOU를 체결해 제3국에서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프랑스산 기자재 등이 조달될 경우 COFACE에서 이에 대한 수출 보증 및 보험을 통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프랑스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한국 기업이 동참할 경우 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우리 기업 진출 부분에 대해 공동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UKEF(영국 수출금융청)와 맺은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기업이 추진하는 제3국 수출 및 해외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재보험 협력 강화 등 을 합의했다.

문화·미디어 분야 한·영 문화창조산업 MOU 체결

한·영 문화창조산업 양해각서(MOU)는 지난 11월 6일 영국 런던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마리아 밀러 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영국은 1998년 창조산업을 국가 과제로 채택한 이래 현재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한 창조 산업의 선구자다. 이번 MOU 체결은 문화·창조산업 분야 인력교류 및 기술협력, 공동제작 추진 등 콘텐츠 교류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은 매년 한·영 창조 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영화·TV·음악·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프로젝트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의 FTA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10 YEARS
BEFORE &
AFTER FTA

2014년은 우리나라가 FTA 시대를 연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년 4월 1일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46개(크로아티아 미포함) 국가와 FTA를 발효 중이다. 지난 10년간 미국, EU, ASEAN 등 세계 3대 경제블록을 포함,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가와 의 교역비중은 35.3%로 일본(18.9%), 중국(21.2%) 등 주요 경쟁국을 앞서고 있다. GDP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56.2%로 칠레(78.2%), 멕시코(61.3%)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른다(한국무역협회, 발효국은 2013년 말 기준, GDP는 2012년 기준).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양자 FTA가 크게 증가했으나, 2010년대 들어 거대 경제블록 간, 선진국 간 거대 FTA 협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와 EU 재정위기가 지속되자 세계 각국이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데 기인한다.

아·태지역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동아시아에서는 ASEAN이 주도하고 16개국(ASEAN+6)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는 한·중 FTA, 한·중·일 FTA 협상이 추진 중이다.

2014년에는 그 어느 해 보다 거대 경제블록 간 다자 FT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CEP, TPP 등 주요 FTA들이 2015년을 협상 타결시한으로 정하고 있어 2014년에는 협상타결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본격화하고, TPP 참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RCEP, 한·중·일 FTA 등을 추진해야 한다.

2014년은 우리나라의 FTA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된 이래 벌써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우리나라 FTA 정책의 지난 10년을 반추해 볼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의 교훈을 바탕으로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의 FTA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FTA의 급격한 확대 속
한국 위상 높아져

▶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후발주자로서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경쟁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가 칠레 수출 선적을 마치고 중남미 수출 200만 대 달성을 기념식을 하는 모습.

→ WTO에 통보된 무역협정을 기준으로 보면 FTA는 195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 왔다. 유럽,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FTA, 관세동맹 등이 추진되어 왔고, 이 가운데 EU(유럽연합),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도 출범하였다.

이 같은 FTA 추진은 1995년 WTO 출범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1958년~2013년 말까지의 FTA 등 무역협정 발효건수는 총 381건으로 이 가운데 86.9%인 331건이 WTO 출범 이후 발효된 것이다. 이처럼 FTA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세계 각국들이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FTA를 체결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 다퉈 FTA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 FTA 경쟁에 뛰어들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FTA 경쟁에 첫발을 딛게 된 것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이 되어서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라는 세계적 조류에는 한 발 늦게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뒤늦은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의 행보는 완전히 달랐다.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후발주자로서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한 물론이고 경쟁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현재는 FTA 강국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추격 전략으로서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거대 시장과의 FTA 추진 전략이 주효했던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첫 번째 FTA를 발효했던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를 현재 46개국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들과의 FTA를 통해 확보한 시장규모는 세계 GDP의 56.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을 큰 폭으로 앞지른 것은 물론,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FTA 상대국도 거대 선진경제권과 신흥국을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 ASEAN 등 유망 신흥 경제권은 물론 세계 최대 시장이자 선진 시장인 미국, EU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EU, ASEAN, 인도 등과 모두 FTA를 체결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경쟁국들도 우리의 이 같은 FTA 성과를 주시하고 있다.

→ 세계 각국의 FTA 추진 확대 조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세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복수의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다자 FTA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상이나 관심을 표명한 TPP 협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남미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4개국은 태평양 동맹을 창설했고, 러시아는 CIS 국가들과 함께 유라시아 연합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제블록들도 이에 질세라 EU는 크로아티아를, 남미의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베네수엘라를 신규 회원국으로 참여시키며 세를 불리고 있다. 다자간 FTA를 통해 경제블록을 형성하려는 합종연횡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선진국들간의 FTA 추진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EU는 최근 캐나다와 FTA를 타결했고, 미국, 일본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TPP 협상을 통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FTA 성과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다자간 FTA를 통한 경제블록 추진 논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블록 논의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일단 체결되면 역내에서 새로운 통상질서로 작용하여 우리

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이 참여하는 RCEP이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를 발효하고, 한·중 FTA와 RCEP 협상을 진행하며, TPP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를 사이에서 핵심축(linchpin)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할에 따라 이러한 협상들의 개방수준과 경제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RCEP과 TPP를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FTA 효과의 상대적 특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한 것은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선점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미 FTA나 한·EU FTA의 경우도 앞선 FTA 체결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며, 이를 수출 확대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향후에도 한발 앞선 FTA 체결로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유망 신흥국 시장이 중요한데 이 가운데 한·중 FTA를 통한 중국시장 선점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 내수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시장을 FTA로 공략하여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❶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FTA 성과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발효하고, 한·중 FTA와
RCEP 협상을 진행하며,
TPP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를 사이에서
핵심축(linchpin) 역할이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TPP 공청회.

앞으로 10년

통상 환경 급변 속, 아태지역
핵심축 역할 수행해야



지나간 10년, 무엇을 남겼나?

다양한 FTA 겪으며 수출 체질·협상력 키워

지난 10년 간 한국의 FTA 역사에서 이정표가 된 FTA 3가지를 뒤돌아봤다. 한국이 맺은 첫 FTA인 한·칠레 FTA, 거대 선진 소비시장과의 본격적인 첫 FTA인 한·EU FTA,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FTA를 통해 한국의 무역 체질은 단단해질 수 있었다.



한·칠레 FTA

한국 FTA의 충실향한 길잡이 역할 수행

하상섭(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교수)

2004년 4월 우리나라와 역사상 처음으로 FTA를 맺은 국가는 남미의 칠레이다. 이후 10년이 흐르면서 양국 무역 관계는 양과 질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2012년 6월에는 양국 사이 기존 FTA의 영역 및 이슈 확대와 이의 질적 공고화를 위해 FTA 2단계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2단계 협력 강화의 방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의 21세기 대(對)중남미 외교 분야에서 새롭게 개척해야하는 분야들인 ①에너지 및 자원외교 차원의 신재생에너지(해양에너지), 광물(자원개발), 인프라 분야와 더불어 ②21세기 기후변화 협력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환경협력과 ③소프트 파워(soft power) 분야인 교육 및 문화교류(K-팝) 등으로 점차 공고화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

한·칠레 FTA는 무엇을 남겼을까. 첫째, 지난 10년 간 한·칠레 FTA 실제 경험은 이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처음 맞는 FTA의



실제 경험과 긍정적인 성과는 이후 다른 국가 및 지역들과의 상호 무역증진 가능성 탐색에 강한 자신감으로 영향을 주었다. 둘째, 그동안 중남미 지역 진출에 있어 지정학적 균형



한·EU FTA

까다로운 유럽 규제 경험, 수출체질 강해져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2011년 한·EU FTA의 발효를 즈음하여 유럽경제는 재정위기에 휩싸이면서 이후 2년 연속マイ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 같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전례 없는 건축조치와 민간의 부채조정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수입수요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한·EU FTA는 매우 비우호적인 경기여건 속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결국 FTA 발효 2년 동안 대EU 수출은 오히려 16.3%(94.6억 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은 22.2%가 증가해 2012~2013년 2년 연속 대EU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유럽의 경기침체와 이와 관련된 선박 수

요의 급감, 유로화 약세 등이 주원인이나, 관세철폐로 인해 원유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의 대EU 수출도 크게 감소하고, 일본과 대만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의 대EU 수출감소를 기록했음을 볼 때 대EU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경제환경이었고, 한·EU FTA가 그나마 한국의 수출감소를 일정부분 저지시켰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중반 이후 EU 경제는 완만하나 비교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1%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의 수입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EU 수출도 관세의 추가철폐와 같은 우호적 여건 속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발효 기간 중 한국과 EU는 FTA 이행협의체를 통해 비관세장벽 철폐 및 직업자격의 상호인정과 같은 이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EU의 규제는 적용 국가 및 규제수준 측면에서 과급효과가 크며 EU는 자국의 규제를 무역상대국에 강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등과 같은 규제압력에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규제 개선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FTA 확대정책으로 인해 관세인하가 수출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바, 중장기적으로는 한·EU FTA를 기술습득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우리 경제의 선진화 계기 마련

김영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

한·미 FTA는 추진부터 국회비준과 발효에 이르는 6년 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추가협상을 거치는 등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다. 거대 선진 경제권과 체결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최초의 FTA는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고, 벌써 1년 10여개 월의 시간이 지났다.

한·미 FTA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실상 완전한 자유무역이 거대 경제권과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쌀을 제외한 모든 상품분야가 개방되었다. 실제 발효 후 1년간의 교역효과를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1%와 -7.7% 변화했으나 한·미 FTA의 혜택 품목은 각각 12.7%와 7.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국의 경기침체에도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관세철폐 효과보다 비관세장벽 완화 등 관세 이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섬유, 전자, 일반기계에서는 그 효과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나 자동차 부품을 비롯하여 화학, 금속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등 산업별 성과가 상이했다. 우려했던 농업부분의 피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피해발생 유무를 좀 더 주시해야 할 듯하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서비스·투자·규범 등의 분야에서 국내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아직까지는 서비스 추가개방 분야가 단계적 개방 또는 일시적 유예상황이라서 법률분야 외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고, 양국간 투자 역시 한·미 FTA 발효 효과가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분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지만, 향후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제도의 개혁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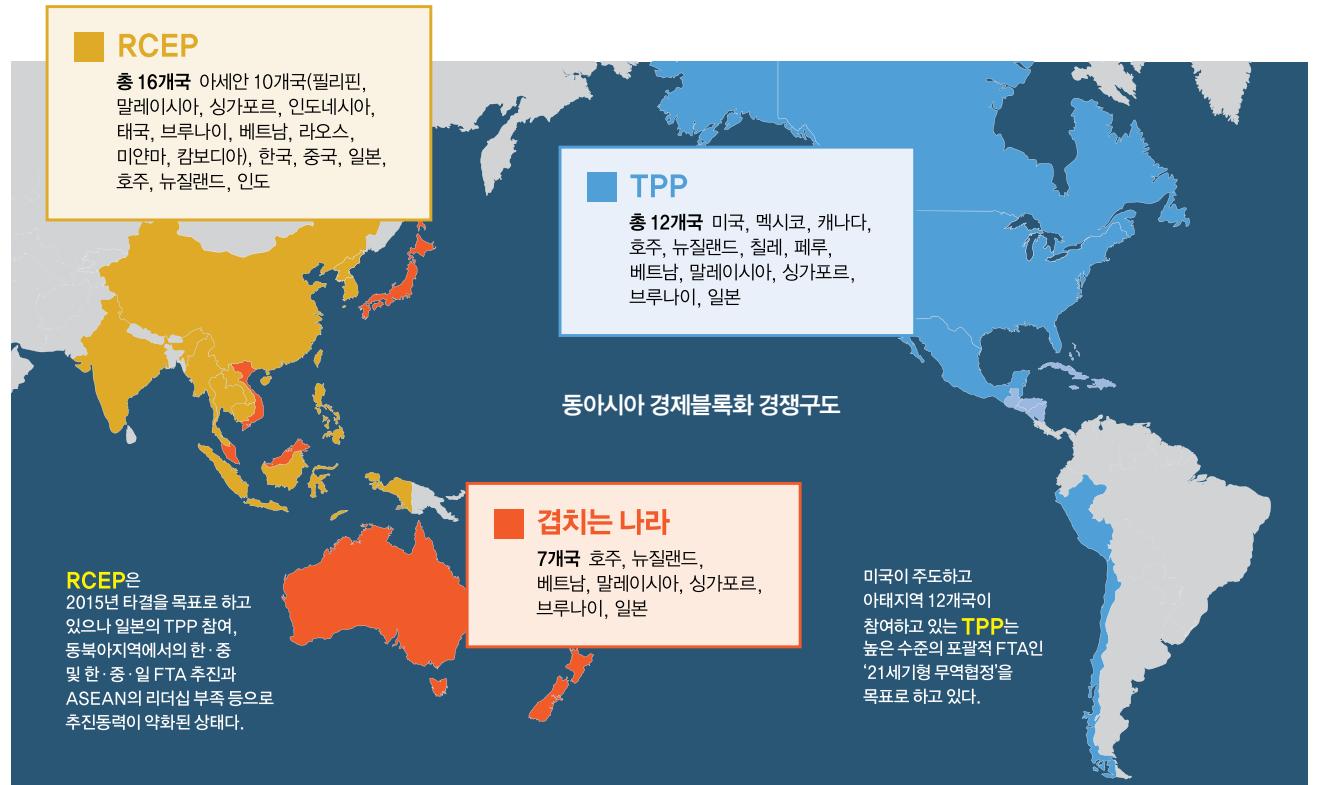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상질서 변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EU와 FTA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아태지역에서는 TPP를 주도하고 있는데 한·미 FTA가 이 협상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논의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앞으로 새로운 통상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한·미 FTA를 발효시킨 우리로서는 그 변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❶



다가올 10년, 무엇을 해야 하나?

아태지역 경제공동체 출범, 한국 또다시 시험대에

10년 뒤 한국의 FTA는 어떤 모습일까.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FTA 현안을 진단해보자. 높은 수준의 자유화로 아태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TPP,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자 경쟁국인 중국과의 FTA, 그리고 TPP보다 더 큰 교역규모를 가진 RCEP의 미래를 그려봤다.



TPP 주요 글로벌 경제 전체와 자유무역하는 유일한 국가 돼

김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팀 초빙연구위원)

10년 뒤 환태평양 경제권은 경제규모로 보나 무역 규모로 보나 세계 1위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는 TPP가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TPP는 시장개방과 경제체제 및 교역규범에 엄격한 자격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TPP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부문 외에는 모든 시장을 열어야 하고 또 회원국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교역규범도 엄격하다. 이

러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은 성장과 투자 확대와 일자리창출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해 주고,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역내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역규범은 회원국 상호간 교역의 거래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써 무역과 경제활성화, 나아가 상호 가치사를 심화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TPP는 일부 아태지역의 개도국, 특히 경제 규모로 볼 때 참여가 마땅한 중국 등이 배제된 채 출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블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10년 뒤면 중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웬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TPP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TPP 경제권의 활력에 이끌려서다. 10년 내 중국이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TPP는 가히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임을 지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부 농축산 수입 급증과 대일 무역역조의 심화를 우려해 협상 참여가 늦어졌지만, TPP 회원국이 된다면 북미 3국, 중국과 일본, 그리고 EU, EFTA, ASEAN 등 사실상 글로벌 경제 전체와 자유무역을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비교열위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성공의 조건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중 FTA는 한국의 기존 FTA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시장접근기회 확보를 가능하게 해 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분업구조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FTA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관세율 철폐의 경우,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은 평균관세율 9.1%, 가중평균관세율 4.6% 수준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평균관세율 9.0%, 가중평균관세율 4.2%를 철폐하게 된다.

교역규모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미국과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커 전체 수출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49.7%, 대중국 수입에서는 52.6%로, 양국간 산업구조가 수직적 분업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의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양국 산업구조 간 수직적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단순제조업과 저부가가치 농업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주력산업의 기술혁신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중 FTA는 우리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농업과 제조업 등 비교열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한·중 FTA는 비교열위산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비교우위구조 확보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한·중 FTA에 따른 우리경제의 미래는 단순 농업과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주력산업의 기술력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RCEP 높은 자유화 수준 어려워… 한국의 추가부담 낮아

우종국 (한경비즈니스 기자)

2011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RCEP에는 '아세안+6(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회원국인 16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격차와 산업구조를 고려해보면 높은 자유화 수준을 가진 FTA가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16개국 간에 이미 체결된 FTA 협정의 상품무역 자유화 수준을 보면, 아세안·한국 FTA, 아세안·중국 FTA, 아세안·일본 FTA 등은 90%가 넘으나, 아세안·인도 FTA는 8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여타 '아세안+1' FTA들에서는 90% 이상의 자유화 수준을 보인 데 반해, 아세안·인도 FTA에서는 48.7%의 자유화 수준을 보여 상대국에 따라서 자유화 수준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RCEP은 높은 수준의 FTA를 강조하고 있지만, 역내 기체결 FTA들과 병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RCEP 체결 후에도 자유화 수준이 높은 기체결 FTA가 활용되고, 새로운 역내 양자간 FTA가 추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따라서 RCEP이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FTA로서의 위상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RCEP의 모든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또는 협상 추진 중인 상태이다. 따라서 RCEP 참여로 인한 한국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CEP이 타결될 경우 세계인구의 48.7%, GDP의 29.5%, 무역액의 29%에 달해 EU, NAFTA, TPP에 버금가는 경제블록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TPP(32.4%)보다 높다(2012년 기준).❶



2014년 통상환경 전망

전반적으로 긍정적...한국에겐 녹록지 않아

올해 통상환경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 지난해보다 0.4%p 높아져 4%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 경제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중시는 대외변수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경제에서 선진국 경제의 귀환 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아베노미스에 힘입은 일본 경제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은 2.7%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적완화(QE) 출구전략 가시화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듦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을 상향조정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간 최악의 부진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낙관하기에는 이를 감이 없지 않다.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 수출보다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1964년 이후 2012년까지 세계 연평균 수출 증가율 10.2%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은 연평균 19.2% 증가해 전 세계 수출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WTO에 따르면, 2012년 세계교역 증가율은 2.3%, 2013년 2.9%로 전망되나 2012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1.3%로 줄어들었고, 2013년 수출증가율은 2%

IMF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세계경제가 그동안의 부진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 연착륙, 엔화 약세 등 부정적 통상 요인에 적기에 대처해야 한다.



대로 추정돼 세계 수출증가율을 밟힐 수 있다.

더구나 금년도 통상환경은 부정적인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될 수 있고,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에 연초부터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고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2~3%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지난해 경제위기설이 나돌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아베노미스와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경제는 엔고로 득을 보고 엔고에 이은 엔저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금년은 바로 엔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를 기대 하되, 부정적인 대외 통상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세워 적기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❶

FTA 강국! 대한민국 포어워~

안종만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한국은 아세안, EU, 미국 등 세계 주요 시장과 FTA를 맺으며 FTA 선도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2013



그러나 지금 국제 통상 환경은 한국이 FTA의 열매를 맛 볼 여유를 주지 않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대 선진국들끼리 FTA 협상에 돌입하면서 국제 무역에서의 FTA 맺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대외환경을 끊임없이 이겨낸 저력을 가진 한국은 이를 헤쳐 나갈 것입니다. 지난간 10년의 FTA처럼, 앞으로 10년 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FTA 주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포어팅!



다시 힘차게
고! 고! 고!

2014

RCEP

TPP

Canada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저력을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은
도저히 모따라 가...

첨단기술의 세포 '나사'의 혁신 이끈다

풀리지 않는 나사 만들기, 나사록코팅



평범한 나사도 나사록코팅을 거치면 특별한 나사가 된다. 젊은 경영자 박영순 나사록코팅 대표는 나사업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어떤 첨단제품이라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품, 어떤 정밀 기계라도 이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부품이 있다. 또한 너무 흔해서 그 중요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마치 공기와 같은 이 부품은 무엇일까. 바로 나사다.

나사는 생긴 것만큼 제조공정도 간단하다. 철 와이어를 절단하고 두드려 나사머리를 만들고, 나사선을 깎은 뒤 열처리와 도금을 거치면 나사가 된다. 이 공정까지는 평범한 나사다. 그러나 코팅이라는 추가 과정을 거치면 나사는 특

별한 나사가 된다. 코팅의 역할은 두 가지로,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 시흥시의 시화공단에 위치한 나사록코팅(Nasalok Coating)은 이처럼 나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회사다.

풀리지 않는 나사 만들기에 매진

나사록코팅의 대표는 젊었다. 박영순 대표는 설립자인 박상철 회장의 아들이다. 그러나 편하게 회사를 물려받은 건 아니다. 건축공학을 전

공하고 건축가의 길을 걷다 아버지의 끈질긴 구애를 물리칠 수 없어 2008년 회사에 합류했다. 술·담배를 하지 않은 모범생 스타일이지만 기계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매달리는 모습이 천상 공학자다. 꼭 2년 전인 2011년 11월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 전통산업인 나사에 첨단을 입히는 일을 착착 진행해오고 있다.

나사록코팅은 연 매출 52억 원(2012년), 직원 40명 규모의 아담한 회사다. 매출이 작은 이유는 나사를 제조하거나 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사급(社給: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주문자가 제공하는 것)받아 순수하게 코팅만을 해주기 때문이다. 코팅된 나사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선 부분에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등의 색이 입혀져 있다. 그냥 보기엔 페인트 같지만 첨단 화학제품이다. 제품명 '나사록 패치(Nasalok Patch)'는 나일론 파우더를 고온에서 녹여 입히는 것으로, 이 나일론이 저항을 높여줘 자연적으로 풀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나사타이트(NasaTite)'는 접착제가 든 초미세 캡슐을 도포하는 것으로, 나사 체결 시 캡슐이 터지면서 접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다

'풀리지 않는 나사'는 현대 공업제품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작게는 안경테, 휴대폰, 노트북PC 등에 쓰이는 1mm 제품에서부터 크게는 자동차, 기계, 건설 등에 두루 쓰인다. 특히 격렬한 진동과 충격을 받는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필수적이다. 너트에 특수한 장치를 써서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는 무게가 늘어나다 보니 건설 분야에 주로 쓰이고, 자동차 등에는 볼트에 코팅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코팅하는 나사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너무 큰 나사는 물류비의 제약으로 현장에서 직접 도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사 산업은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량'과의 치열한 전쟁터다. 불량이나사가 자동차 부품에 쓰이면 그 부품에서 불량이 나오고, 그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도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및 부품업체에서도 나사 불량에 엄격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천, 수만 개나 되는 나사 중에서 불량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사를 제조하는 것보다 불량을 골라내는 것이 더 큰 일이다. 박 대표는 젊은 공학도답게 나사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그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량을 골라내는 '비전선별기'다. 나사 제조과정에서 불량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를 골라내면 규격 제품만 반출되게 되고 결국 '불량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선별기 가격이 너무 비싸 영세한 나사업체들이 도입할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대만제의 경우 싼 것도 1억 원을 넘는다. 그러자 박 대표는 직접 선별기 개발에 나섰다. 현재 시제품을 개발한 상태다. "저희는 코팅만 하지만, 불량 나사가 들어와 코팅 후 나가게 되면 우리가 불량을 생산한 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막상 만들어 보니 그렇게 비싸게 구입하지 않아도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나사 제조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선별 기능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시판 중인

선별기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추다 보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판매까지도 가능한 상태로 발전했다.

"이제 나사공장에 보급돼 한국 업체들은 모두 '비전선별기'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한국을 다시 볼 겁니다. 그럼 아무리 다른 나라 제품이 싸다고 하더라도 불량률이 낮은 우리나라 제품을 사겠죠." 나사업종은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 보니 세대 이동이 되지 않고 1세 경영인이 아직 운영하는 곳이 많다. 그 외에 젊은 박 대표가 총대를 매고 혁신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자부심이 그를 연구·개발에 몰두하게 만드는 동기다.

호기심 많고 혁신에 주도적인 박 대표이니만큼 FTA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FTA 활용 초기에는 '코팅'은 가공비로 처리돼 주문업체에서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일부 수출물량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작업에도 문제가 없다. 2013년 8월부터는 FTA-PASS(관세청 시스템)와 ERP 연계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다. 비전선별기와 FTA 업무시스템으로 무장한 나사록코팅을 보니 해외시장을 주름 잡을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

Case Study 직수출 없어도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하면 원산지 관리 업무는 동일해



나사록코팅의 경우 직수출 비중은 많지 않으나, 납품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원산지 관리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코팅 처리 과정을 거친 원제품은 일반적인 볼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볼트(HS 코드 7318.15)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볼트라 할지라도 제조 과정에서 열처리와 녹슬지 않기 위한 코팅 과정을 거치므로, 코팅은 일반적인 볼트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볼트(7318.15호)의 원산지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동일하다. 국내에서 공급받은 볼트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은 경우 원재료에 해당하는 코팅 전 볼트는 국내산으로, 코팅제인 화학물의 세번만 변경되면 코팅 후 볼트도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코팅제인 화학물의 경우 38류로, 최종 제품인 볼트의 세번과 다르므로 국내산으로 최종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 나사록코팅은 자사 제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삼양라면

세계 최고의 라면 수출국, 시작은 기계 두 대



한국전쟁 이후 만성적 식량부족에 허덕이던 1960년대, 라면은 굶주림에 지친 이들의 끓은 배를 채워준 고마운 식품이었다.

현재 한국의 국민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세계 1위지만 한국에서 라면산업이 시작된 것은 반세기 전에 불과하다. 초창기, 삼양식품의 기계 두 대는 현재 1억9,667만 달러(2013년 기준)를 수출하는 라면 선진국의 토대가 됐다.

한국 최초의 라면은 1963년 9월15일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에서

출시됐다. 시작은 '식품황제'로 불리는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 회장의 아이디어였다. 당시 전 명예 회장은 우연히 남대문시장을 지나가

다 배고픈 서민들이 5원짜리 '꼴꼴이 죽'을 사먹기 위해 줄을 길게

선 것을 보고 '서민들에게 값싸고 영양 있는 한 끼를 먹게 해야겠

다고 생각했다. 보험회사를 경영 중이던 전 회장은 1959년 출장차

들린 동경에서 먹었던 라면을 떠올렸다. 일본에서는 묘조식품(明

星食品)이 개발한 치킨라면이 전년에 출시돼 일본 내 각 회사가 다

투어 제품을 만들 정도로 히트하고 있을 때였다.

1963년 첫 생산, 면발을 실로 착각하기도

전 명예회장은 라면 도입을 위해 정부를 설득했고 정부의 승인과

함께 5만 달러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라면

제조사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회사도 제조기술과

라면은 일본에서 유래했지만, 한국 특유의 매운 맛으로 한국은 라면 수출 선도국이 됐다. 사진은 스위스 용프리우에서 라면을 먹는 외국인들, 칠레 푼타아레나스 라면집, 러시아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고르는 모습(왼쪽부터).



1969년 월남 한국군 군납으로 첫 수출

삼양라면은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을 거듭한 끝에 출시 6년 만에 초창기 매출액 대비 300배에 달하는 발전을 이뤘다. 1966년 11월에는 한 달 동안 240만 봉지가 팔려 나갈 정도로 급성장했다. 1969년에는 월평균 1,500만 봉지씩 팔렸다. 처음 제품을 선보였던 1963년에 비해 300배나 성장한 것이다. 시간이 거듭되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에도 성공했다.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이 삼양식품에 직접 전화를 걸어 "스프에 고추가루를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는 일화가 남아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삼양식품의 경영 전략은 내수 중심이었다. 라면 산업에 밸을 담근 이유 자체가 국민의 먹거리 문제 해결이기도 했거나 해외 수출까지 눈을 돌릴만한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 위주 정책에 힘입어 점차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술 이전을 해 준 묘조식품의 패키지 120만 포를 수입해 포장만 삼양라면으로 바꿔 판매했다.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라면공장의 가동이 개시된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2년 전인 1963년이었다. 라면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은 '麵(국수 면)'과 '綿(솜 면)'이 한글 표기로는 같은 글씨인 뒷에 "실인가?"라고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한국 라면들이 쇠고기 국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첫 선을 보였던 삼양라면은 닭고기 맛이었다. 기술을 들여온 묘조식품의 라면이 닭고기 국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면도 닭기름에 튀겼다.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입에 잘 맞지 않아 처음 라면을 맛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시큰둥했다. 하지만 한 봉지에 불과 10원이었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당시 꿀꿀이죽이 5원, 커피는 35원 정도였다. 그리고 밥과 국, 두 가지가 식사의 주요 요소인 한국인들에게 면과 국물이 제공되는 라면은 한 끼 식사로 충분했다.

삼양식품은 라면을 보급하기 위해 당시로선 파격적인 '무료 시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원이라 는 판매가격을 7년여 간 유지한 데다 초기에 벌였던 무료 시식회에 많은 비용이 들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면의 보급 확대와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투자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 명예회장의 판단이었다.

시작은 군납이었다. 1969년에 라면 26만 상자가 베트남에 수출됐는데 이는 월남전에 참전한 장병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월남전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3,0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중 삼양라면은 단일 품목으로만 27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9%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과 동남아지역 등에 진출했으며, 1972년 미국 코리아코퍼레이션과 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주지역으로도 확산됐다. 미주지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압도적인 수출처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71년에는 라면이 194만6,970상자나 수출돼 절정을 이뤘다. 이것은 월남전의 군납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양식품 제품의 수출국들은 월남(베트남),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서독, 브라질 등이었다. 이 중 삼양식품에 기술을 전수해 준 일본 시장 진출은 31만 달러(1969~1980년)라는 성과도 놀랍지만, 그 의미만으로도 꼽을 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 최대 슈퍼체인인 다이에이가 삼양라면의 질과 저렴한 가격에 주목해 수입을 늘려 1980년 이후 삼양라면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시키기도 했다. ☉

한국의 배는 수분함량과 당도가 높고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곳은 미국(8,125톤), 대만(6,468톤)으로, 홍콩(230톤), 캐나다(205톤), 인도네시아(184톤)가 그 뒤를 잇고 있다(2012년 기준). 이처럼 한국 배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예부터 이 땅을 살아온 이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과일 중 하나가 배다. 오죽하면 그 많은 과일 중에 제사상에 꼭 올려야 하는 것으로 꼽혔을까. 일설에 의하면 배의 노란 껍질은 한민족의 피부색을, 하얀 속살은 백의 민족을 상징한다고 하니, 알게 모르게 배에는 우리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 먹고 이 닦기’ ‘다문 입에 배 안 떨어진다’와 같은 속담이 일상생활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것도 삼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배의 재배 역사를 생각해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본초강목에 ‘약(藥)’으로서의 효능 설명

한반도에서 배가 오래도록 재배돼 온 것에는 그만큼 좋은 과일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날로 먹으면 갈증 해소에 좋다. 한 입 깨물었을 때 과즙이 흘러내려 옷을 흠뻑 적셔 곤란해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또한 배는 다른 요리에도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여름철 냉면 위에 얇게 썰린 배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불고기 같은 음식에 넣으면 육질을 부드럽게 해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약(藥)으로서의 가치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기침, 가래 등 폐, 기관지와 관련된 질환 예방·치료에 좋다는 점이다. ‘당본초(唐本草)’에는 ‘열과 기침을 억제하고 갈증을 멎추게 한다’고 적혀있으며, ‘본초강목’에는 ‘폐를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시원하게 하며 담을 삭혀준다’고 배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의 배

한반도에서 오래도록 재배되어 오며 우리의 음식 문화와 함께 해 온 한민족의 열이 담긴 과일, 우리 배가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배’는 2013년 한국 수출 가공·신선 식품 중 누계금액 기준으로 귤류, 커피조제품, 음료, 라면, 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산 배에는 항산화, 항암, 면역력 증강 효과를 나타내는 카테킨, 클로로겐산, 프로시아니딘 등 폴리페놀 물질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탕, 인삼, 소주, 김치 등에 이어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과실 종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수출효자 품목이다. 우리가 수출 과실로 익히 알고 있는 유자차, 사과, 감귤보다도 배의 수출 물량이 더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배의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에는 4,990만 달러 수출 하던 것을 2013년에는 5,510만 달러 수출하여 10.3% 증가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배는 2012년 기준으로 미국 8,125톤, 대만 6,468톤, 홍콩 230톤, 캐나다 205톤, 인도네시아 184톤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대만에 수출하는 식품 중 배가 1위를 차지하며 귤류와 인삼류, 사과, 닭고기가 그 뒤를 이어 수출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는 라면 다음으로 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비스킷과 인삼류, 고추장이 배의 항암 효과도 주목받게 했다. 연구진은 배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생리활성을 조절해 자궁경부암 세포증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등과 같은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분 함량과 당도가 높아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우리 배가 영양까지 풍부하다고 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배가 가진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자.

항산화·항암 효과 학술적으로 밝혀져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산 배에는 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배수출연구사업단 연구진은 지난 4월 미국 농식품화학회지(J. Agric. Food Chem.) 등 식품관련 해외 유력학술지에 국산 배에는 항산화, 항암, 면역력 증강 효과를 나타내는 카테킨(catechin),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프로시아니딘(procyanidin) 등 폴리페놀 물질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폴리페놀이란 ‘제7 영양소’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로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배에 자궁경부암 세포 사멸효과를 나타내는 말락시닉 에시드(malaxinic acid)가 존재한다고 밝혀 배의 항암 효과도 주목받게 했다. 연구진은 배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생리활성을 조절해 자궁경부암 세포증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등과 같은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는 미용에도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우선 태풍으로 떨어진 낙과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기도 한다.

국산 배 수출 현황(2012년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급화장품의 천연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알부틴(arbutin)이 배의 어린과실에 다양 함유되어 있다. 이는 미백 효과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껍질에는 성인병 예방 및 노화방지 등 체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과육보다 25~100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다.

비만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즙과 배 과육을 투여한 동물의 간장, 지방 근육에서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단백질의 발현은 증가한 반면, 지방축적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억제시키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새로 밝혀진 배의 기능성 성분들뿐만 아니라 이를 순도(高純度)로 대량추출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산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고품질·안전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 가공제품 개발 등 수출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추진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그간 버려지던 어린 과실과 매년 태풍으로 떨어진 낙과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 개발 등으로 우리 배가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식품으로 육성되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 더욱 크게 기여할 날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

역사로 보는 FTA-①FTA의 탄생

WTO 합의 지지부진, FTA 맺기 가속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역자유화의 수단으로 FTA와 WTO를 동시에 활용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FTA와 WTO를 무역자유화 수단의 두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WTO 규정에 이미 FTA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FTA의 역사는 WTO 탄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적으로 인접국가들 간 시장통합의 추진은 유럽 내에서 생성되어 발전해 왔다. 중소규모 경제국들로 구성된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시장이 협소한데서 비롯되는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시장통합을 시도해 왔다. 1944년 탄생한 베네룩스 관세동맹(Benelux Customs Union)은 시장 확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최초의 시장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국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미국 주도하에 23개 국가들이 모여서 최초의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만들고 무역장벽을 낮추어 가기로 합의하였다.

식민지 특혜관세 위해 GATT 예외조항 삽입

GATT는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 원칙(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와의 특혜관세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GATT에 FTA 관련 예외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규정된 것이 GATT 제24조이다. GATT 제24조는 역내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역외국들에 대해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더 높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은 이후에 유럽통합 과정에서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하는데 활용되었고, GATT 회원국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게 되는 근거 조항이 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 이후에는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GATT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지역주의가 동시에 전개되었다. 특히 유럽에서 본격적인 FTA 움직임이 나타났다. 1952년 최초의 유럽통합기구인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철강공동체)가 50년 시한으로 출발하였다. ECSC는 1958년에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로 발전하였고, 이후 EU(유럽연합)의 모체가 되는 EC(European Community: 유럽

공동체)로 심화되었다. EC는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및 덴마크의 가입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어 1986년 마침내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을 제정하게 된다.

한편 GATT는 1986년 제8차 무역협상인 우루과이아운드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이 협상이 빠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장기화되자 주요 선진

국들은 FTA 추진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1992년 EC는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단일시장을 창출하고 이후 민주화와 자본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동유럽 국가와 FTA를 맺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고 EC에 대응할 수 있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남미 지역에서는 중미공동시장과 안데스 공동체 논의가 성과를 거두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중심이 된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도 결실을 거두어 대표적인 남남 경제협력체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FTA가 체결되면서 다양한 무역규범에 대한 타협 방향이 설정되었고 이는 또한 우루과이아운드에 반영되어 1995년 탄생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기반이 되었다.

381건 FTA 중 75%가 2000년 이후 체결

그런데 WTO가 출범하고 나서도 FTA 체결 건수는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 전경.



역무역협정 체결 건수는 381건에 달 한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5건이 2001년 이후에 체결됐다는 사실은 2000년대 들어 지역주의가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되었는지를 방증한다.

W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1년 개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다자무역체제에 기대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FTA 체결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WTO 회원국은 159개국에 달한다.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 단계도 매우 다양해서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농업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농산물 시장을 좀 더 개방하고 농업 보조금도 축소하길 바란다. 반대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공산품과 서비스 시장을 좀 더 개방하길 희망한다. 이렇듯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WTO에서는 무역자유화 협정을 타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물며 자국의 특수한 요구를 관찰하기는 더욱 어렵다.

반면 FTA는 마음에 맞는 몇몇 국가 간에 맞춤형으로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타결될 수 있다. 무역자유화의 수준과 범위도 WTO보다 높고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 등 주요국들은 WTO 보다는 FTA 체결에 더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FTA가 다자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디딤돌(building block)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stumbling block)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체로 FTA는 다자무역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많다. 지역무역협정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질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은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시험장(test bed)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이행경험은 다자무역체제의 규범개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궁극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의 규범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다.❶

추진 경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197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방콕협정이라 칭하던 것이 2002년 1월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 간 무역확대를 위해 2006년 9월 1일에 개정 발효된 개도국 간 무역협정이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회원국 간 무역에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주요 골자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APTA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어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투자, 서비스 등 비관세분야로 협상범위도 확대되었다. 현재 APTA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제적 자

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정의 성격

APTA 회원국 간에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양허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한국은 10~50% 수준), 특히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특별양허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HS코드 7318.15-2000의 한국산 철강제 볼트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수입기본관세는 8% 이지만, APTA를 적용할 경우 특혜 폭 50%를 적용받아 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APTA는 FTA의 일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PTA는 국제협력관세의 일종으로서 FTA특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FTA와는 구분된다. FTA가 상품협정, 서비스 및 투자협정과 같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협정인 반면에 APTA는 개도국 간 교역증대를 위해 상호 양허한 물품에

대해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협의의 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즉, FTA와 달리 전체 품목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간에 합의된 한정된 품목에 한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원산지 결정 기준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수출입 품목이 APTA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하고 ②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③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제품이어야 한다. 현행 AP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은 협정국에서 전부 생산 또는 획득한 광물, 동물, 식물과 그 제품 및 협정국의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등은 그 생산국이 원산지가 되는 완전생산기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불완전 생산품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가가치기준이 있다.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5%(단,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65%)를 초과하지 않은 제품, 다시 말해 수출국의 부가가치 45% 이상의 물품은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품의 생산에 협정국들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의 60%이상(단,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최종 생산품이 작업된 협정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의 부가가치가 45%에 미달되어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부가가치까지 포함시켜 60%이상이면 이 경우에도 최종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APTA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인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시켜주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특혜폭을 늘려주고 있으나, 원



APTA 원산지증명서는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방식과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한다.

산지 판정에 대해 부가가치기준만을 사용하고 있어 분야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FTA와 마찬가지로 APTA에서도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수출국의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APTA에서도 지리적 또는 운송 상의 이유로 비협정국에서의 단순 경유가 가능 한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역 후 재선적이거나 그 밖에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어떠한 작업도 행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B/L상에 출항지가 협정국이고 도착지가 한국이면 타국을 경유하지 않은 직접운송으로 본다. 다만,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APTA를 적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으로, B/L 또는 AWB(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이 수출국인 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경유지인 홍콩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❶

알아두면 쓸쓸한 APTA의 이해와 활용

중국과의 무역 시 관세인하 혜택 가능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과는 아직 FTA 협상 중으로 FTA로 인한 관세특혜를 당장 받을 수는 없지만 2006년 8월 이후 아시아권 일부 개발도상국간 상품 교역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 있다.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회원국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발효 2006년 9월 1일

성격 국제협력관세의 일종으로 FTA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APTA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APTA는 FTA보다는 수준이 낮은 제한적 관세협정으로 관세청 FTA포털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APTA 협정문(한글 및 영문)을 다운로드 받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www.customs.go.kr) 홈페이지 → 워크 메뉴의 '법령정보' →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 → 메뉴 바의 '법령' → 국제관세협약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①도어스커프 & 휴대폰 케이스

FTA 활용, '첫 단추'가 중요하다

품목분류는 FTA 원산지관리의 시작이다. 수입 시 적용하는 일반관세율 및 FTA협정관세율,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액 등까지도 품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HS 품목분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사항이다.

사례1 도어스커프(Door Scuff)

①HS 8708.99로 분류할 경우

- 해당 HS 품명: 기타 자동차 부품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CTS(6단위 세번변경기준)
- 미국관세율(기본세율): 2.5%
- 한·미 FTA세율: 0%
- 간이정액환급액: 수출금액 FOB 1만 원 당 20원



※위 사진은 내용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②HS 8512.20로 분류할 경우

- 해당 HS 품명: 기타 자동차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CTS(6단위 세번변경기준)
- 미국관세율(기본세율): 0%
- 한·미 FTA세율: 0%
- 간이정액환급액: 수출금액 FOB 1만 원 당 60원

자동차 도어 하단 발판부분에 장착된 LED 램프가 빛을 내서 안내효과와 동시에 장식기능을 하는 도어스커프(Door Scuff)를 생산해 국내에 공급하거나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A업체가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러하듯이 A사 역시도 어스커프를 자동차의 기타 부품으로 분류되는 HS8708.99를 적용하여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미 FTA 체결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품목분류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물품은 HS8708.99가 아닌 차량용의 조명 또는 신호기기에 해당하는 HS8512.20호로 분류됨을 알게 되었다. 두 HS코드 모두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S로 동일하여 국내 공급 시 발급해왔던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간단히 수정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수출 시 미국에서 적용하는 한·미 FTA 특혜세율은 달랐다. HS8708.99의 경우에는 기본세

율 2.5% 대비 FTA 특혜세율 0%가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재검토된 HS8512.20을 사용하면 FTA적용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소 수출기업인 A사는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업체로서 그동안 도어스커프를 수출하면서 HS8708.99로 수출신고했기 때문에 2013년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개기된 HS 10단위 기준으로 책정된 FOB금액 1만 원당 20원씩 환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HS8512.20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액은 FOB금액 1만 원당 60원이었다. 즉, 과소환급이 발생했던 것이다.

A사는 즉시 도어스커프에 적용하는 HS코드를 변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국내 거래업체 및 미국의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였다.

SOLUTION 품목분류, 전문가의 검증 필수

FTA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6단위 소호가 정해지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인되고, 수출을 위한 준비 서류 및 절차 등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도 보듯이 보통 수출입물품의 화주는 HS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에 대해 수입자와 의견이 있거나 분류가 힘든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회신 받거나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2 휴대폰 케이스

①HS 4202.99로 분류할 경우

- 해당 HS 품명: 기타 케이스, 가방 등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 미국관세율(기본세율): 3.4%
- 한·미 FTA 세율: 0%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 한·EU FTA 세율: 0%



※위 사진은 내용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②HS 3926.90로 분류할 경우

- 해당 HS 품명: 기타 플라스틱제품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 미국관세율(기본세율): 5.3%
- 한·미 FTA 세율: 4.2%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MC 50% 이하(부가가치기준)
- 한·EU FTA 세율: 0%

주로 미국에 휴대폰케이스를 수출하는 B기업은 미국의 수입자가 알려준 HS코드 4202.99(기타 케이스, 가방 등)로 수출신고를 진행해왔다. 한·미 FTA 발효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했으므로 원산지 판정에 앞서 품목분류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결과 회신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휴대폰의 후면을 감싸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함과 동시에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HS3926.90(기타 플라스틱 제품)로 분류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었다.(※참고-지갑이나 다이어리 형식의 휴대폰 케이스는 HS4202.99)

HS4202.99 및 HS3926.9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각각 CC 및 CTH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FTA 특혜세율을 보면 HS4202.99는 0%, HS3926.90는 2020년까지 0.5%씩 단계적 인하대상으로 2013년 현재 4.2%가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B사는 미국의 수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하여 현지 품목분류확인서 및 수입통관서류를 확보한 후 HS4202.99와 HS3926.9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충족하므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HS코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EU로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B사는 적극적으로 EU의 HS 품목분류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 만약 EU와 한국의 품목분류 역시 상이한 경우라면 한·EU FTA 원산지증명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격이 요구되므로 한국의 HS코드와 EU의 HS코드에 대해 동시에 인증을 획득해 수입자가 요구하는 HS코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❶



사후검증 따라잡기-①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

국내 협력업체도 대상, 5년간 서류 보관해야

2012년 통관수입액은 전년 대비 0.75% 증가한 데 비해, 관세수입은 전년 대비 10.9% 줄었다. 이는 거대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의 FTA의 발효와 함께 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한 수출입 통관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협정국 관세당국에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협정 활용을 위해 '원산지 검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FTA시대에 원산지 검증은 당연히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인 것이다.

원산지 검증의 기본 원칙

- ① 수리 후 조사원칙: 원산지 검증은 수출입 신고 수리 후 실시한다. 즉,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신고하거나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전에는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서면조사 우선 원칙: 협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진위여부 및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③ 수입자 우선 검증: 협약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제품 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의 진위여부 및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원산지 검증 현황〉

FTA	2010		2011		2012		2013.8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EFTA	4	8	24	28	10	23	3	3
ASEAN	2	14	19	27	31	32	39	42
EU	-	-	41	67	181	460	152	905
인도	-	-	-	-	-	-	-	-
TOTAL	6	22	84	122	222	515	194	950

※C/O: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출처: 2013 국제원산지컨퍼런스)

1) 일부협정(예:한·미 FTA)은 상대국 관세당국에 검증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 수치는 이를 협정에 따른 검증건수가 제외된 수치이다.

원산지 검증의 종류

원산지 검증은 그 수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직접검증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상대국 세관 등을 거치지 않고 체약상 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한·미 FTA(섬유 의류 제외), 한·칠레 FTA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검증은 관세당국이 체약상 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한·EU FTA, 한·EFTA FTA가 이에 속한다. 또한 두 검증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가 그러하다.

〈원산지 검증 방식별 비교〉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한·칠레 FTA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한·싱가포르 FTA (①, ② 순차)	①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정보요청 ②방문조사	-
한·EFTA 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참관가능)	-
한·ASEAN FTA (①, ② 순차)	①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②방문조사	-
한·인도 CEPA (①, ② 순차)	①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②서면 또는 방문조사	-
한·EU 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참관가능)	-
한·페루 FTA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해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추가적 정보 서면요청	방문조사
한·미 FTA	간접검증 방식 적용 (섬유제품에 한함)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

※참고-자료의 보관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 가능하다.

수입품목에 대한 사후검증

물품을 수입하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을 받을 수 있다. 수입품목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우리나라 세관이 직접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한·미 FTA 검증과 같이 우리나라 세관이 직접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출자의 도움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에 FTA 특혜관세 및 원산지 판정, 검증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❶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원산지 검증 현황(주요협정)

FTA	2010		2011		2012		2013.8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업체수	C/O 기준
EFTA	12	590	6	243	21	934	-	-
ASEAN	22	82	16	254	27	542	9	336
EU	-	-	-	-	-	26	53	105
미국	-	-	-	-	-	-	36	246
TOTAL	34	672	22	497	74	1,529	150	1,090

(출처: 2013 국제원산지컨퍼런스)

알쏭달쏭 FTA 실무지식, 짚고 넘어 가실게요!



FTA 협정 및 법령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세운송신고서 사본을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에 의한 원산지증명방식은 기관발급이다.
- ④ 수출자의 과실·착오 등으로 인하여 수출물품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실무

다음 중 HS 협약(HS 품목분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HS 협약 제정 목적은 국제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하여 국제교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 ② HS 품목분류표는 국제무역패턴변화, 무역거래량 등을 감안하여 품목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개정 해오고 있으며, 제5차 개정은 2012년 1월 1일 발효했다.
- ③ 각 체약국은 개정된 HS 협약(HS 품목분류표)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국의 관세율표, 수출입통계표 또는 관세·통계통합분류표를 HS 품목분류표와 일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HS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체약국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우선 WCO 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권고에 따른다.

원산지결정기준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역내생산기준
- ② 충분가공원칙
- ③ 최소허용기준
- ④ 직접운송원칙

정답과 해설

1 정답: ②

이유 및 근거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②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서 사본,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답: ③

이유 및 근거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①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는 것은 WTO의 설립목적이다.

② HS 품목분류표는 5년 주기로 개정한다.

④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체약당사국간에 교섭에 의해 해결한다.

3 정답: ③

이유 및 근거 역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강화적 성격이 강한 반면, 최소허용기준은 일반기준의 특례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자료 제공: 국제원산지정보원(원산지관리사 시험 수준)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FTA를 체결한 국가끼리 서로 선으로 이어보자. FTA 체결 수가 많은 만큼 이어진 선의 수가 많아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의 스파게티 가락처럼 얹히고 설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함으로써 각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으로 인해 FTA 활용 이익이 반감되는 현상을 일컬 때 쓴다.

FTA를 체결한 많은 대상국 혹은 지역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이 복잡하게 얹혀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지나친 부담이 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마치 스파게티 가락들이 복잡하게 얹힌 스파게티볼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뜻에서 스파게티볼 효과 또는 누들볼(Noodle Bowl Effect)라고 부른다.

기업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수출할 때 특혜관세를 받음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 상대국이 정한 여러 규정과 절차, 요구조건을 준수해야만 하는데, 관세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은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이다. 원산지규정이란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확인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FTA는 체결국 간에만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당사국 간 배타적 협정이므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엄격하게 규정된다. 이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간단한 추가공정을 통해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FTA 체결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생산기준(자국의 원재료를 이용해 최종상품을 생산·가공·제조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세번 변경기준(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 즉 HS코드와 최종상품의 세번이 다를 경우 최종상품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부가 가치기준(최종상품에 대해 특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가공공정기준(최종상품의 주요공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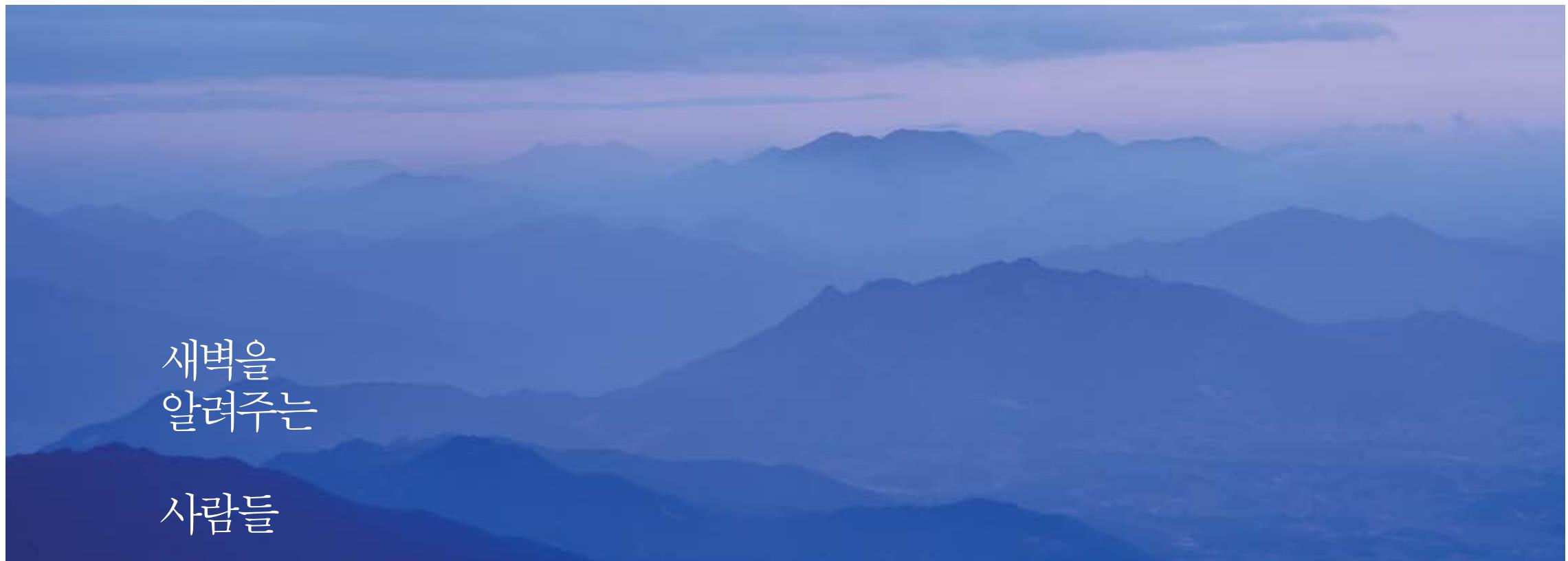
Spaghetti Bowl Effect 스파게티볼 효과



나라마다 원산지규정 다르면 이익보다 비용 커져 FTA 효과 감소돼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등이 있다.

각 국가와 체결한 FTA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업은 같은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어느 국가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원재료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는 부담과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는데, FTA 체결국이 많아질수록 이런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뒤에 원산지 규정에 어긋난 것이 밝혀진다면 면제받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벌금까지 징수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FTA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한 국가가 맷은 FTA의 수가 많아질수록 심화되게 된다. 최근 개별 FTA국들이 모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광역 FTA를 추진하는 것은 단일화된 원산지규정 적용을 통해 스파게티볼 효과를 막으려는 동기도 작용하고 있다.❶



새벽을 알려주는 사람들

미국 LA 부근에는 리버사이드시티라는 중소도시가 있다. 그 도시 시청 앞 광장 공원에는 세 사람의 동상이 있다. 맨 앞에는 흑인 인권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고통 받아 온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무저항의 투쟁을 하다가 암살당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그의 서재에는 그가 남겨놓은 글귀가 그대로 벽에 써져 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구약의 성구이다.

이스라엘의 제3대 조상인 아곱에게는 열 두 아들이 있었다. 열 한 번째인 요셉은 부모의 편애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이복형들의 미움과 원한을 산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를 섬기게 된다는 꿈 얘기를 한다. 그 과정에서 형들이 부모 모르게 요셉을 죽이기로 한다. 그러나 이집트까지 팔려가게 된 요셉은 종국에 가족들과 이집트 국민을 살리는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된다. 킹 목사는 자신이 암살당할 수 있다는 예감을 하면서도 성경 속 이야기처럼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뤄질 것을 믿었던 것 같다. 그의 동상에도 킹 목사의 유명한 제목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오늘날 그의 꿈은 실현되었다. 흑인 대

통령과 흑인 국무장관들이 오늘의 미국을 이끌고 있다. 그 동상 뒤에는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를 본 미국 사람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어떻게 된 일인가 묻곤 한다. 그러나 응당 그래야 할 사연이 있다. 조국의 희망과 독립의 꿈을 안고 젊은 나이에 미국에 도착한 안창호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오렌지 농원이 가득한 이 지역으로 와서 한 농장주를 찾았다. 나를 믿고 고용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성실과 근면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도산은 정말 모범적인 노동자였다. 농장주가 안창호의 인품과 정성에 감복할 정도였다. 도산의 심중에는 농장주도 모를 어떤 꿈과 의지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를 선대해 주었다. 세월이 지난 뒤 그 노동일을 했던 도산이 한국에서 민족부흥 운동을 이끌었고 독립전선에 헌신하다가 육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한 뜻 있는 사람들이 동상을 건립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나는 17세 때 도산이 가출옥으로 잠시 고향에 머무는 동안 두 차례 그의 강연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아마 그것이 마지막 강연이었을 것이다. 다시 수감되었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본 도산은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기와집 앞에서 저

만큼 농촌에서 잘 살려면 어느 정도의 농토와 재산이 있으면 되느냐고 물던 모습에서 모든 국민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원하는 도산의 꿈을 느낄 수 있었다. 도산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새벽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의 꿈을 실현시켰다. 경제적으로는 인정받은 국가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후진국을 넘어서섰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도산도 마음 편히 안식할 것으로 믿는다.

도산의 동상 뒤에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세워졌다. 미국 땅에 흑인의 동상과 한국 사람의 동상이 세워진 것도 상상 밖이지만, 멀리 인도 사람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약간 의아한 면이 있지 않다. 그러나 전 세계 사람에게 물어보라. 아메리카에 간디만큼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는가.

몇 해 전 미국에서 간디의 일생을 영화로 제작한 일이 있었다. 두 편으로 되어 있는 이 무미건조해 보이는 기록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모두가 우려했다. 그러나 간디의 생애가 여과 없이 드러난 이 영화는 조용하지만 커다란 정신적 선물을 일으킨 영화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다. 간디의 시신을 화장하고, 그 재를 인더스강에 뿌리면서 ‘모든 거짓과 폭력은 사라진다. 그러나 진실

“

나는 이 세 사람의 동상을 회상하면서 저 분들은 새벽을 알려주기 위해 어두운 밤을 힘들게 살았던 지도자였다는 생각을 했다. 그 분들은 안 져도 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고 고독과 고뇌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글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과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말로 대사가 마무리된다.

간다는 살아있는 동안 11번의 단식을 감행한다. 죽음을 예고하는 단식이었다.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가 한 나라로 성장하기를 염원했으나, 힌두교 과격분자의 흉탄으로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지금도 인간의 가치와 인류의 희망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있다. 거짓을 진실로 바꾸며 폭력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랑이 있는 고난의 짐을 지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이 세 사람의 동상을 회상하면서 저 분들은 새벽을 알려주기 위해 어두운 밤을 힘들게 살았던 지도자였다는 생각을 했다. 그 암흑 속에서도 우리에게 꿈을 안겨준 선각자들이었다. 그 분들은 안 져도 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고 고독과 고뇌의 길을 걸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역사의 가시밭길을 외로이 개척해가다가 희생한 생애를 살았다.

그러나 그 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 사랑이 있는 고생의 짐을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버림받고 있는 흑인들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다. 조국을 빼앗기고 길을 잃은 거레를 위해서라면 천년을 고생해도 힘들지 않다고 민족을 사랑했다. 하위를 진실로 바꾸며 폭력을 사랑으로 승리하는 세계를 위한 꿈을 버릴 수가 없었기에 우리도 간디의 뒤를 따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고생을 이어가는 인생이다.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해 사랑이 있는 고난의 짐을 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새해에는 이웃과 국가를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져도 좋을 것이다. ☽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조각가

새벽은 어제를 정리하고 오늘을 준비하는 '중간지대'

'함께하는 FTA'는 신년을 맞아 독자가 참여하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문화예술계 인사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대학생 임소현 씨가 안규철 작가(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조각가)를 만났습니다.

“새벽의 의미는 ‘중간지대’라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 시간입니다. 어제로부터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남겨둘 것은 남겨둬야 합니다.”

임소현 씨(25·안양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는 경영학 전공자이지만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다. 최근 경영학의 트렌드는 경영과 인문학의 융합으로, 경영학도들도 경제·경영 지식 외에 문화·예술 등 다방면으로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임 씨는 안규철 작가의 책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 안 작가를 알게 되었다. 안 작가는 서울대학교 조소과 졸업 이후 ‘계간미술’에서 7년 가까이 기자를 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7년간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나이 마흔에 늦깎이 전업미술가의 길을 걷던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창립 때 교편을 맡아 17년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글 쓰는 작업을 가진 때문인지 미술가이면서도 ‘현대문학’에 꾸준히 글을 내는 작가를 겸하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임소현 씨는 그간의 바람대로 지난 1월 7일 안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삼청동의 갤러리 ‘스케이프’를 찾았다.

임소현 교수님 전시회는 가끔 찾아가곤 했는데, 직접 뵙기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전시회 타이틀인 ‘무지개를 그리는 법’은 어떤 뜻인가요?

안규철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의 제목인데요, 여러 개의 색연필을 하나의 막대기에 모아 회전하면서 여러 개의 반원들이 모여 무지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작업실을 보니 제가 연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단지 하나의 HB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데, B1, B2, H1, H2 등 종류별로 또 색깔별로 모든 연필을 다 갖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필을 사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연필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연필들을 한꺼번에 사용하자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임소현 (벽에 걸린 작은 액자들을 가리키며) 여기있는 이 스케치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규철 제게 작은 스케치북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 아침 일어나 연필로 스케치를 하거나 글을

씁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생각을 그리거나 적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전에 써놓았던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모이게 됩니다.

임소현 매일 아침 그렇게 하시나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마동안 하시는 거죠?

안규철 제가 직업이 교수와 작가로 2개입니다. 교수로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업작가들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스케치북을 들고 수시로 쓰고 그리는 건데, 그 일을 아침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로 6시 반에 일어나 1시간가량 합니다. 못 할 때도 있지만, 아침에 원가 성과가 있으면 하루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소현 와, 저는 작가님들이 주로 밤에 많이 작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꼭 새벽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규철 새벽의 의미는 ‘중간지대’라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 시간입니다. 어제로부터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남겨둘 것은 남겨둬야 합니다. 무역으로 치면 일종의 ‘통관’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어제 두고 와야 할 것을 오늘까지 들고 오면 하루가 힘들어집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아집니다. 어제의 것은 모두 던져놓고 와야 오늘이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임소현 작가님의 작품은 화려한 색채를 쓰거나, 시선을 사로잡는 형태감은 아닌 것 같아요.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사실 흔한 사물들인데, 그것을 구성하는 방식, 즉 아이디어가 감상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안규철 대개 미술은 작가의 예술적 영감을 혼신의 힘으로 쏟아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각적인 강렬함을 따지면 이제 예술이 첨단산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만 해도 숙련된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멋지게 차를 만들습니까. 광고는 또 얼마나 시선을 잡아끌니까. 이제 미



안규철 작가는 강렬한 시각적 자극보다는 멈춰 서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작품을 추구한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임소현 씨가 안 작가를 만났다.

술은 그것들과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생각해야지요. 개인의 수공업적 방식으로 희소한 가치를 만들어서 차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저의 경우에는, 불거리는 적지만 건조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방향으로 삼습니다. 이를 흔히 ‘개념미술’이라고도 하지요.

임소현 건조하게 질문을 던진다, 뭔가 매력적이네요. 작가님만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안규철 아무리 강렬한 자극을 주는 작품이라도 미술관에서 관객은 한 작품 앞에서 30초 이상 있기 힘듭니다. 시각적 자극에 빠져들수록 두뇌의 회전은 점점 느려집니다. 작가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걸 보는 관객은 단지 스쳐지나갈 뿐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란하게 돌아가는 이미지 속에서 화면을 정지해서 보여주면, 반대로 두뇌는 회전을 시작합니다. 제 작품이 질문을 던지는 형태가 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놓치고 있는 것, 부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이 아닐까요.

임소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건 더 많은 생각 끝에 나오는 것일텐데 작가님의 새벽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안규철 맞습니다. 제게 새벽은 과거의 생각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시간입니다.❾

Deep blue at dawn

파란 새벽

러시아 소치의 새벽은 파랗다. 시린 새벽은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 내는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시간이다. 4년 전 동계올림픽이 열린 캐나다 밴쿠버의 새벽이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도전을 준비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의 새벽도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칠혹 같지만 하얀 입김을 내뱉을 때마다 투명해져, 자연스레 시린 감각이 무뎌지고 맑아지는 세상 위로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2014년 파란 말(靑馬)의 해, 다시 한 번 소

치의 파란 새벽에 훌릴 기회를 얻은 나는 오는 2월 1일 동계올림픽 취재를 위해 소치로 떠난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 파랗다고 하는 동계올림픽의 새벽 풍경은 낯설지도 모르겠다. 늘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진행되는 결승 위주의 경기에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 국민들이 즐겨 보는 피겨여왕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과 빙속여제 이상화의 스피드 스케이팅, 남·녀 대표팀이 메달을 쓸어 담는 쇼트트랙이 모두 실내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동계올림픽의 새벽, 그 낯선 시간의 모습은 어떨까. 4년간 공들인 노력을 펼치고, 그 노력들이 눈부

신 영광으로 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에 앞서, 동계올림픽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It is people that make it special

새벽을 여는 주인공은 사람이다

선명한 불빛으로 새벽을 가르는 의욕적인 풍경은 가장 먼저 주차장에서 발견된다. 거대한 트럭들이 앞 다퉈 불을 밝히고, 끊임없이 사람들 이 그 안을 들락거린다. 그 거대한 트럭은 동계스포츠강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프랑스 등의 '왁싱 컨테이너(Waxing Container)'들인데, 프랑스 대표팀의 스테판 코치의 표현을 빌리면, 이 컨테이너들은 '400가지 마법이 펼쳐지는 비밀상자'라고 한다.

경쟁국이라면 며느리라 해도 모르게 하는, 이 비밀의 공간에 언젠가 운 좋게 들어가 본 적이 있다. 마치 실험실처럼 꾸며진 이 공간에는 수납장마다 대표 선수들의 스키가 신줏단지처럼 모셔져 있었다. 한 선수당 대략 20세트씩의 스키가 있는데, 남·녀 6명씩, 모두 12명의 스키를 이 컨테이너 안에서 6명의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었다. 대부분 국가대표급 선수 출신으로 이루어진 이 관리인들은 이른 새벽에 실제 경기가 열릴 코스에서 '팀(TEAM)' 또는 '서비스맨 (Service Man)'이라 적힌 조끼를 입고 직접 스키를 타며, 실제 경기장의 상태를 살핀다. 그리고는 바로 컨테이너로 돌아와 경기장의 상태에 적합한 스키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스키에 왁스를 칠한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장비의 상태를 조정하는 것이다. 똑같은 스키라 해도 왁싱에 따라 1만 미터에서 2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간발의 차로 메달 색깔이 바뀌는 설상 경기에서 2분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현재 알려진 왁싱 비법은 대략 400가지이다. 그래서 '400가지 마법'으로 불리지만, 정확하게 몇 가지나 되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특히, 나라마다 고유의 왁스를 바르고, 혼합 방법도 다른 데다, 공식 교육기관이 없어 도제식으로 비결이 전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계 스포츠강국의 왁싱 컨테이너는 신비롭기 까지 하다.



1 스키장에서 팬들은 라체(ratche)라는 응원도구를 흔들며 분위기를 띠우는데, 소리가 잘 나는 나무로 톱니바퀴 원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톱니바퀴처럼 하나 되는 경기와 딱 맞아 떨어진다.

2 각국 스키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왁싱 컨테이너(Waxing Container)'는 400가지 마법이 펼쳐지는 비밀 상자로 불린다. 스키 기록을 단축시키는 왁싱 기술이 400여 가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날이 밝고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은 새벽부터 서비스맨들이 상태를 점검하며 지나갔던 코스를 따라 달린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눈, 바람 같은 자연과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신과의 싸움에 접어든다. 어김없이 우승자는 나오고, 메달리스트와 메달 도전에 실패한 선수들도 가려진다. 서비스맨들은 승자와 같이 환호하고, 패자와 아쉬움을 함께 나눈다. 동계올림픽의 파란 새벽은 몇 시간 만에 승리의 빛과 패배의 그림자를 낳고 사라진다.

흔히 자연과 싸우는 동계스포츠에서 시설과 장비가 기록의 90%라고 한다. 하지만 자연을 이해해야만 하는 설상 종목에서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서비스맨과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사람이 가진 자연을 읽는 경험과 지혜, 금메달을 따고 세계 기록을 내는 선수의 아바타 역할을 하며 선수와 공감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야 말로 설상종목의 기록을 만드는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Dawn of Sochi will be alive tomorrow

또 다른 새벽으로 살아나

우리 시각으로 2월 8일 새벽 소치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 모두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환호하고 열광할 것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금메달을 목에 걸면 노르웨이 출신의 소나 헤니, 동독의 카타리나 비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여자 피겨 싱글에서 2연속 우승을 차지

하는 역사를 만든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가 다시 세계 기록을 세우고, 2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다면 한국빙상의 신기원을 열게 된다. 효자종목 쇼트트랙은 신선희를 앞세워 메달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여자 컬링이 최초로 메달 도전에 나서고, 스노보드와 프리 스타일 스키에서도 이변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스포츠 무대에 우뚝 설 것이다.

이 모든 결선 경기가 끝나는 시간, 시차가 5시간 빠른 우리나라 다음날 새벽으로 접어들어 있다. 소치에서의 소식이 파랗고 투명한 새벽을 열어줄 것이다. 때로는 김연아와 이상화처럼 화려하게 비상한 적도 있고, 때로는 바이애슬론 경기장의 서비스맨처럼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을 돋기도 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지난 4년간의 노력이 피어나는 결정의 순간은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성공과 승리의 기쁨에도, 실패와 좌절의 아픔에도 다같이 박수를 보내며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성큼 앞으로 다가온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그 새벽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는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

미리 가본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의 새벽 풍경



← 국가대표급 선수 출신인 '서비스맨(Service Man)'들은 이른 새벽 경기가 열릴 코스에서 실제처럼 경기장을 누빈다. 경기장 상태를 충분히 살피고 나면, 컨테이너로 돌아와 가장 적합하게 스키에 왁스를 칠한다.



정리 김보람 기자



한·중 FTA 제9차 협상 개최 전체 품목에 대한 구체적 양허안 논의 시작

한·중 FTA 제9차 협상이 1월 6~10일 단시간 중국 시안(西安)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Offer)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Request)을 처음으로 교환했다. 우리 측은 비교 우위에 있는 석유화학·철강·기계·정보통신(IT)과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전략품목인 화장품·고급가전·의료기기 등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했다. 다만 FTA 체결 때 큰 피해가 요구되는 농수산물과 영세 중소기업 제품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세적인 입장은 취했다. 반대로 중국 측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품목을 대거 초민감품목에 넣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은 “중국 측이 자국 양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대외비를 요청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측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중국 측의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전부 확인한 만큼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전략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다만 FTA 협정문의 틀을 짜는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은 상품 분야 외에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정부조달 포함) 등 총 15개 챕터로 구성됐다. 양측은 10차 협상을 3월께 한국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우태희 실장은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한·미 FTA가 10개월, 한·EU FTA가 26개월 걸렸다. 한·중 FTA 협상도 20개월째에 접어든 만큼 예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점검 현장의 의견을 반영… 실효성 높일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체감도 재고를 위해 마련한 2013년 하반기 4건의 이행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4건의 이행과제는 △폐업지원 직불제 개편, △농식품 19대 수출 상품 집중육성,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등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과수 폐업 지원 직불제의 경우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폐원한 과수원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다른 농지 또는 임차지에서 동일 품목을 재경작하지 못하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축산 폐업지원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폐업지원금 신청 시 재사육 금지기간인 5년간 폐축사를 소 사육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의 경우 수급자격 증명을 위해 연간 수산물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로 ‘사매매 구매확인서(간이세금 계산서 등)’를 제출하지만 동 입증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 증빙자료의 공신력 강화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향후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부처에 통보해 그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7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다양한 FTA 활용 성공기업 사례 도출 확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7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한국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1년간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노력과 성과로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각 지원 사업별 차질 없는 추진 및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크게 제고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별 내실화는 지속 추진키로 했다. ‘FTA 해외활용지원반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에서는 외국에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를 지속으로 해소키로 했고,

‘FTA 국내보완대책 관리 내실화 방안’ 보고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 관리 과제의 성과 점검 및 관리 방식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유통망진출지원센터 개소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유통망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체계적인 유통시장공략을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미 동부 현지시각) 미국 유통망진출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미국 유통망진출지원센터는 뉴욕과 인접해있고 바이어 접근성이 좋은 뉴저지 리지필드 파크(Ridgefield Park) 챌린저 로드(Challenger Road)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인근 가든 스테이트를 내에 설치한 중기제품 전용매장(K-HIT)과도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연 미국 유통망진출지원센터는 자체 상품전시실과 물류창고 및 애프터서비스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며,

바이어에 대한 한국 상품 소싱 지원, 유통망 런칭 프로모션 전개, 기업에 대한 유통망 진출 현지화 컨설팅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어서 한국 소비재 중기제품 대미 수출 플랫폼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중진공 본사 상품소싱센터에서 발굴한 유망 중소기업 상품 200여 점을 전시한 쇼룸과 유통망사업 참여기업 출장자 지원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바이어 미팅룸, 회의실 등을 함께 갖추고 있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한국 중기제품의 미국, 동남아, 유럽, 중국 시장공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올 1월에는 섬서성 시안(西安)에 중국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차 HS 가이드’시스템 구축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자세히 소개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확대에 따른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의 품목분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HS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 12월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분류(HS번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부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는 품목분류 관련 전담인력의 채용이나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스템은 약 5,000여 건의 방대한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사례를 물품사진, 용도, 협정세율 등의 정보와 함께 제공하며, 상위 카테고리인 ‘세계 HS 정보시스템’에서 비슷한 물품에 대한 해외 분류사례 검색도 쉽게 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자동차 HS 가이드’가 품목분류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사용자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TPP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05년에 결성된 한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SEPA: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 확대된 구조다. TPSEPA는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며, 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 4개국으로 구성되어 P4(Pacific 4개국)라고도 불린다.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면서 명칭이 TPP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견제하고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확장하고자 TPP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P4를 포함해 미국·호주·말레이시아·페루·베트남의 9개국이 협상을 시작했고, 2011년 캐나다와 멕시코, 2013년 일본이 추가로 참여해 현재 12개국이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참여국이 늘 어남에 따라 P4 수준의 자유화 달성을 보다는 미국의 기체결 FTA 자유화 수준으로 TPP 협상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기원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광역 FTA로, 2001년 10월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에 의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건의되었고, 2002년에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도 동아시아 FTA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세안+3 차원의 FTA인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선호하는 중국과 아세안+6(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차원의 FTA인 동아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을 선호하는 일본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의 FTA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TPP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이 참여하면서, TPP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에 경쟁자로 부상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과 아세안+6의 타협안으로 RCEP이 채택됐고, 2012년 11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와 함께 RCEP의 협상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RCEP은 높은 수준의 FTA를 강조하고 있으나 협상에 참여하는 16개국의 경제발전격차와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높은 자유화 수준을 가진 FTA가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소 FTA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처럼 읽기 쉽고 예쁜 책자가 매월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이번 호는 한국 FTA의 역사와 성과,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향후 FTA 관련 용어, 많이 쓰는 영문 약자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는 코너가 생긴다면 처음 이 잡지를 접하는 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지성 서울시 종교청구동

50대의 주부들에게도 꼭 필요한 FTA 상식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 월간지를 통해 FTA에 대한 지식도 쌓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도 깰 수 있었어요. FTA는 주부들

이 싸고 다양한 머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정책인데 그동안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늘 가지고 다니며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잡지의 판형을 더 작게 할 수는 없나요?

박숙희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함께하는 FTA〉 12월호를 읽으면서 뿌듯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FTA를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FTA로 경제 영토가 35배로 넓어졌고,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가졌다니 말이에요. 처음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사회적 갈등이 커던 데 비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수출 증가와 국제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파이팅입니다!

박순구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그동안 FTA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함께하는 FTA〉를 읽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생 리포트에서 보여준 '베트남의 까다로운 통관 애로와 한·베트남 FTA 체결 시 기대' 편을 읽고 한·베트남 FTA 체결을 통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지 후반부에는 FTA 이외에 다양한 문화 면과 세상사는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도 담아주세요.

전호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여성의 취업을 위한 모든 것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1544-1199
일을 구해 드립니다

직업상담

- 전문 취업상담
- 적성검사
- 진로설계

1:1 맞춤형 취업상담

개별 상담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원이 구직 여성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로 상담해 드립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의욕을 상실했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자신감회복, 이미지 메이킹 등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직업교육 훈련

- 직업의식교육
- 능력개발교육
- 면접교육

무료 직업교육

직업 능력개발이 필요한 여성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경과학이동도서·실버카어, 성과이행기획기, 기업회계 정보관리사, 대량생산업종설문원(CC)전문가 등

직업의식 고취교육

직업의식 교육, 능력개발 교육, 이미지 메이킹, 면접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직업교육 과정은 센터마다 다르며,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 알선

- 여성인턴제도
- 동행면접

개인 맞춤형 취업 알선

구직 여성의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후 현황, 경력사항 등을 바탕으로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면접에 어려움을 느낄 때 취업설계사가 면접에 동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체일터에서 인턴(개월이내)으로 일하면서 직장과 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직업교육훈련교육생 및 수료자, 취업을 하기 직접 단계의 구직자 대상으로 양질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성친화기업인증획득, 사업장인식개선 등 강의지원, 활동개선지원 등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기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여성친화기업인증획득, 사업장인식개선 등 강의지원, 활동개선지원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 비 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직 희망 여성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마다 취업설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는 구직 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면서 성공적인 취업 및 직장 생활을 돋우고 있습니다.

▶ 여성의 왕래가 짊은 장소에서 취업설계사가 직업상담을 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새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 3 8 0

FTA 콜센터 1380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교육 및 총보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ting(교육+컨설팅)



▶ 애로해소

FTA 활용 예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